

## 전문대학에서의 창업교육

황성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 I. 창업의 중요성과 지원정책

창업은 국가 경제의 유연성과 혁신성, 역동성을 견인하는 중심적인 역할

개발경제시대를 지나 급속한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화와 고객요구에 적절히 부응하기 위한 끊임없는 창업이 필요하다. 또한 창업은 새로운 상품과 시장의 창출을 통해 기존 기업의 혁신에 큰 자극을 불어넣음으로써 국가 경제의 유연성, 혁신성과 역동성을 견인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황성수, 2010: 1).

창업은 성장과 고용 간 선순환구조의 매개고리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지속 성장의 토대를 제공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고용기회의 축소 및 불균등·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적 분배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가 붕괴되고 각종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업’은 성장과 고용 간의 선순환구조의 매개고리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지속 성장의 토대를 제공하고 사회적 문제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면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황성수, 2010: 2).

국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정부는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양극화 해소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해소 및 고용안정 방안에 집중하고 있으며, 더불어 계속되는 일자리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창업 유인책을 활용하고 있다. 그 중 정부의 창업 지원사업의 유형별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의 유형별 운영 현황(2013)

유형	사업명	소관 부처	지원 내용	예산 및 시행연도
사업화	청년 창업사관학교	중소기업청	- 3년 이내 초기기업의 CEO(만39세이하)를 선발하여 창업단계 전 분야에 걸쳐 체계적으로 지원	253.9억원 (2013년)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중소기업청	- 협약종료 3개월 이전까지 창업을 완료할 수 있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1년미만)의 사업화 지원	500억 원 (2013년)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중소기업청	- 우수 아이템개발을 통해 선도벤처기업과 협업 등 전략적 제휴관계를 희망하는 기술창업희망자(팀)	75억 원 (2013년)
	연구원 예비기술창업지원	중소기업청	- 예비창업자(팀)가 직접 연구개발 또는 연구기관 제공기술 사업화를 희망하는 자	20.5억 원 (2013년)
	실전창업리그 「슈퍼스타 V」	중소기업청	- 성공창업을 꿈꾸는 예비·초기 창업자에게 사업화 및 창업멘토링 지원	17억 원 (2013년)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	중소기업청	-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통해 보유 지식의 사업화 역량 강화	30억 원 (2013년)
교육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중소기업청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해외진출의지가 높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창업연수 및 보육 지원	20억 원 (2013년)
	창업선도 대학육성	중소기업청	- 지식·기술 집적된 창업특화대학에 창업교육부 터 사업화지원까지 패키지식 지원	402억 원 (2013년)
	창업아카데미 지원	중소기업청	- 일반인 창업교육기관40개, 대학교 40개에 사업비 및 교육생 창업지원금, 멘토링비 지원	69.5억 원 (2013년)
	청소년 비즈쿨 지원	중소기업청	- 전국(130개) 초·중·고교의 창업교육을 지원하여 청소년 창업 및 비즈니스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화 체험활동 지원	45억 원 (2013년)
자금	창업기업 자금지원	중소기업청	- 창업초기기업의 생산설비, 사업장 건축·매입자금 및 기업활동 자금지원(창업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1조 2,500억 원 (2013년)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모태조합은 민간자금의 투자를 유도하고자 정부재원으로 결성한 펀드로 투자조합 결성금액의 30~70%를 모태조합에서 출자	4,400억 원 (2013년)

(표 계속)

## 이슈 분석

유형	사업명	소관 부처	지원 내용	예산 및 시행년도
인프라	시니어 창업지원	중소기업청	- 고령화사회대비 시니어(40세이상) 예비창업자가 경력·네트워크·전문성을 활용하여 성공적 창업을 지원(창업스쿨, 비즈플라자, 시니어특화 창업보육센터 운영)	43.5억 원 (2013년)
	창업보육센터 확장 및 운영지원	중소기업청	- 중기청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대학·연구소 등에 건립비 및 운영비 지원	177.4억 원 (2013년)
	앱 개발 및 창업지원	중소기업청	- 모바일 앱 개발 교육희망하는 예비 1인 창조기업을 위한 25개 내외의 스마트 앱 창작터 운영	95억 원 (2013년)
	우수 앱 해외진출 지원	중소기업청	- 해외진출 희망 앱 개발자(기업)에게 번역, 홍보물 제작 및 해외 퍼블리싱 등 지원	10억 원 (2013년)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중소기업청	- 1인 창조기업에 사무공간, 경영, 비즈니스창업 및 사업화 지원	(2013년)
	참살이 업종 실무교육 지원	중소기업청	- 기술·전문지식 등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문화, 뷰티, 취미, 여행 및 건강 등의 분야에 대한 참살이 실습터(10개) 운영을 통해 실무교육 지원	18억 원 (2013년)
재기 (再起)	사업전환 지원사업	중소기업청	- 경쟁력이 떨어진 업종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 지원	1,700억 원 (2013년)
	중소기업 재기 지원사업	중소기업청	- 잠재 부실중소기업, 실패 중소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전문가 진단(신속한 회생 및 회사정리 방향제시), 재기 교육을 제공해 주는 신규 사업(힐링캠프식 교육)	(2013년)
	자영업자 전직지원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후 폐업(전직)하고자 하는 자영업자에게 신속한 재취직 및 창업을 지원(폐업정리절차, 변화관리 및 취직·창업 컨설팅, 취업알선 등)	(2013년)
기타	청년창업자인턴제	고용노동부	- IT, 디자인 등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현장경험을 쌓은 후 해당 분야에서 취업·창직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턴기회 제공 - 창직·창업 성공시 청년에게 창직지원금(200만원) 지원	(2013년)
	사회적 기업 육성	고용노동부	-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에 경영지원, 운영비 대부, 공공기관 우선구매, 세제 및 사회보험료, 전문인력 채용지원 등	(2013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고용노동부	- 위탁운영기관에 사업참여자 배정물량에 따른 육성비용 제공, 참여자에 여비, 시장개척을 위한 홍보비, 정보활동비, 창업관련 수수료 등 소요 비용을 위탁운영기관을 통해 월별 지급	(2013년)

자료: 2013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2013 고용노동정책 활용

주요 부처(중기청, 고용부)의 창업지원 정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초기 사업화 단계의 정책이 6개, 배정 예산은 896.4억 원이며, 창업 교육과 관련된 정책이 4개, 배정 예산은 536.5억 원, 창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은 6개, 배정 예산은 343.9억 원이다. 여기에 더해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용자의 성격을 가진 자금지원 정책(2개, 1조 6,900억 원)과 ‘재기 기회’ 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실패자 또는 업종 전환 희망기업을 위한 정책(3개, 1,700억 원)이 있다. 따라서 외형상으로는 창업관련 정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은 각각의 단계에 있는 정책들이 상호·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창업교육 정책을 통해 동 과정을 이수한 창업자에게 창업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서 동시에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멘토링을 수행하여 사업화 성공 시, 사업확장을 위한 자금지원(용자) 또는 실패 시, 재기 기회로서 사업전환 지원 등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현재의 제도와 정책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처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창업의 전 단계(창업교육부터 아이디어 사업화, 사업 확장, 출구 전략 등)를 아우르려는 정부 창업정책 간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창업 관련 정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이나, 각각의 단계에 있는 정책들이 상호·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음

창업의 전 단계(창업교육부터 아이디어 사업화, 사업 확장, 출구 전략 등)를 아우르는 정부 창업정책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

## II. 우리나라 창업교육 현황

우리나라의 창업교육은 기업가 정신의 고양을 중심으로 창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중심으로는 창업대학원(전국 5개) 및 창업선도대학 선정을 통해 창업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일부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초·중·고등교육기관과 중등교육기관(중·고교)에서는 창업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문계 고등학교 기술가정 선택과목 내용에 일부 포함되거나 특성화고 상업계열 고등학교 일부 선택과목으로 정규교과안에서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다(김주미, 2013: 5).

실제로 신일비즈니스고등학교에서는 창업비즈니스과가 1, 2학년에 3학급, 3학년에 4개의 학급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에서는 창업

일부 고등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초등 교육기관과 중등 교육기관(중·고교)에서 창업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콘텐츠과가 3학급으로 운영 중이다.

이외 학교 급별 창업교육은 중소기업청 지원 사업인 비즈쿨(BizCool)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함양 등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다. 2002년 첫 출발점에서 15개 학교, 2003년 50개, 2004년 80개, 2005년 100개로 증가하였다가 2006년 83개, 2007년 94개, 2009년 135개, 2012년 105개로 이어지다가 현재 2013년에는 130개의 학교에 학교 당 1,200~5,000만 원을 차등지원하는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중앙부처나 교육기관이외에 지방정부의 창업관련 교육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Hi Seoul 창업 스쿨’(창업교육은 물론 수료 후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창업컨설팅, 자금, 경영지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과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창업교육팀의 ‘전문계고 학생창업 지원’(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서울 소재 전문(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창업활성화 유도 및 일선 지도교사들의 직업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등이 있다. 이밖에 민간기관의 창업교육과 관련하여서는 NFTE KOREA, 아이빛연구소 등 여러 기관에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2. 비즈쿨 운영(초·중·고)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학교	94개교	96개교	135개교
학생수	53,594명	61,032명	85,017명이상
동아리	313개	423개	786개
교육차수	연간68차시 (방과후)	연간68차시 (방과후)	연간68차시 (정규과목편성)
교사연수	179명	197명	300명
학생만족도	82.5%	85.1%	87%이상

출처: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한 계열별 창업교육과정 연구(김주미 외, 2013), 6쪽

표 3. 국내 민간 창업교육 운영기관(2010년)

명칭	홈페이지 주소	설립시기	주 교육대상
매경어린이 경제교실	www.connie.co.kr	2001. 01	어린이
아이빃연구소	www.ivitt.com	2001. 09	어린이, 청소년
어린이 경제신문	www.econoi.co.kr	2001. 09	어린이, 청소년
이코비	www.ecovi.co.kr	2000. 03	어린이
전경련 시장경제	social.fki.or.kr	2004. 05	어린이, 청소년, 청년
청소년 경제학교	www.wow-eco.com	2004. 07	어린이, 청소년
청소년 금융교육 협의회	www.fqc.or.kr	2003. 04	어린이, 청소년
틴틴경제 (중앙일보)	teenteen.joins.com	2003. 01	어린이, 청소년
하이경제 (대한상의)	hi.korcham.net	2002. 09	어린이, 청소년
한국경제 교육연구소	www.keeri.co.kr	2002. 02	어린이
NFTE KOREA	www.nftekorea.com	2004. 05	어린이, 청소년, 청년
JA KOREA	www.jakorea.co.kr	2002. 10	어린이, 청소년

출처: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한 계열별 창업교육과정 연구(김주미 외, 2013), 8쪽

이들의 주요 프로그램은 체험 및 캠프, 학교 방문교육, 교사연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국내 민간 창업교육 주요 프로그램

기관 및 단체	대상 / 인원	주요 교육 내용
매경어린이 경제교실	초4,5,6학년 60명	게임으로 배우는 용돈과 신용 나는 어린이 CEO, 증권 박물과 견학 증권 투자 게임, 나도 현명한 부자가 될거야
아이빃연구소	초등3, 중등2 100명내외	아이빃 비즈스쿨(자체진행캠프) 체험중심 경제·경영 사회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비즈니스 매너와 에티켓 비즈니스·시장 논리·투자 원리
어린이 경제신문	초등2, 중등2 120명	나의 금융지수(FQ)평가, 내게 맞는 업무 찾기 사업 준비 및 재료구입하기, 엽기 경매 돈의 탄생과 기능 배우기, 사업 체험하며 돈의 흐름 배우기 경제올림픽, 보드게임으로 배우는 투자 팀별 실적 발표회·투자하기

<표 계속>

기관 및 단체	대상 / 인원	주요 교육 내용
이코비	초등3-5학년 120명	경제: 사업과 소비의 체험(경제퀴즈,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견학: 증권박물관 체험: 도자기만들기, 풍선아트 놀이: 별자리 관찰, 눈썰매
전경련 시장경제	고등학생 120명	미국경제교육협의회(NCEE)의 체험식 경제교육 프로그램 8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영어로 진행
청소년 금융교육 협의회	초등4-6학년 70명	명함 만들기, 비즈니스 매너 에티켓 희소성 가치게임, 물물교환 경제마술 레크레이션, 보드게임
틴틴경제 (중앙일보)	초등5-6학년 100명	생소한 경제를 놀이를 통해 체험 직접 사업을 기획, 진행 자연스럽게 시장을 이해
하이경제 (대한상의)	초중고 신청학생	기업체 탐방을 통한 교육 기업체 방문을 통한 기업 및 기업가 정신 이해, 기업현장 근로자의 역할 배우기, 미래 산업사회 전망과 나의 미래 직업 탐색
한국경제 교육연구소	초등, 중1 80명	퀴즈로 자금 만들기, 사업계획서 발표, 베스트 사업아이템 만들기 상품기획, 제작, 사업 맛보기 시장 열기, 체험 불황과 호황, 용돈 관리 소시게임
NFTE KOREA	초-대학생 50명 내외	시장경제와 비즈니스 기초 이해 사업 계획서를 작성, 사회활동 스킬 훈련 모의 창업 체험, 손바닥 시장 오픈

출처: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한 계열별 창업교육과정 연구(김주미 외, 2013), 9쪽

체험 학습 위주의 기업에 대한 이해 및 사업계획서 작성, 신용관리 및 창업과 금융에 관한 내용 학습, 견학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학교 방문 교육은 특강 형식으로 기업의 CEO나, 경제교육 전문가에 의해 경제에 대한 설명식 수업 등이 많고 유료로 진행되는 곳들도 있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학교 방문 교육의 특징은 비즈쿨과 NFTE KOREA가 창업 및 기업가정신 교육과 관련한 연수인 반면 기타 연수는 경제와 관련된 내용의 연수로 편성되어 있다.

교사연수는 정부기관 3곳(비즈쿨)에서 운영하며, 민간단체 6곳(NFTE KOREA, 아이빛연구소, 어린이 경제신문, 전경련 시장경제, 청소년금융 교육협의회, 하이경제(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원하고 있다.

표 5. 국내 창업관련 교사연수 현황

명칭	연수내용
NFTE KOREA	3개의 과정으로 편성 운영 CET 1과정: NTTE 입문과정과 기초과정을 교수할 수 있는 창업교육 교사 양성 CET 2과정: NTTE 심화과정을 교수할 수 있는 창업교육 교사 양성 CET 3과정: NTTE 모든 프로그램을 교수할 수 있고 창업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창업교육 교사 양성
비즈쿨	비즈쿨 비즈니스 지도자 연수 초급, 중급, 고급 과정별로 구분하여 진행 비즈쿨 학교운영 참가를 희망하는 예비교사의 창업교육 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 연수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학생 교수법 전수
아이빛연구소	주로 방문 교사 연수 학교기업, 비즈쿨, 금융, 경제와 관련한 심화 연수 진행
어린이 경제신문	경제교육 지도사 양성 기초과정: 경제 전반의 기초 지도자 양성 심화과정: 금융, 무역, 경제, 기업의 눈 키우기 등 유아~초등 고학년 심화교육을 위한 훈련
전경련 시장경제	교수법 연수 및 체험단 연수 중등교사 경제교육 교수법 연수: 경제의 기본원리 및 현실 경제와 기업에 대한 교수법 연수 체험단 연수: 중국경제의 발전상과 한·중간 기업경영 환경 현황 체험: 북경, 청도, 상해, 심천지역 방문 방문 기업: LG전자, 현대자동차, 세정악기, 하이얼그룹, 포동 경제특구정부, LG전자, 이마트, 상해폭스바겐, 삼성SDI 방문 등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체험 중심의 연수 스승과 제자의 중국 연수: 학교별 교사 및 학생 선발 중국기업 체험 연수 사회, 경제관련 교사 해외 산업시찰 연수: 금융, 경제 및 기업관련 교육을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사 선발 중국산업시찰 연수

출처: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한 계열별 창업교육과정 연구(김주미 외, 2013), 11쪽

우리나라 창업교육의 일반적인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초·중등 교육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기업가 정신’, ‘도전정신’, ‘사회적 책임’ 등 창업에 필요한 기본소양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민간 교육기관에서도 ‘왜 창업가가 필요한가?’, ‘창업가(기업가)가 행해야 하는 덕목은 무엇인가?’, ‘주요국의 창업정신 교육에 대한 벤치마킹’, ‘Best Practice로 삼을 수 있는 선도적 창업가로부터의 교육’ 등에 대한 창업교과 과정 및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기업가 정신’, ‘도전정신’, ‘사회적 책임’ 등 창업 과정에 필요한 기본소양에 대한 교육과정이 미흡



창업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에 대한 교육은 고등교육기관(대학 및 전문대학) 또는 민간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창업정신,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교육은 초·중등교육기관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향후 창업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에 대한 교육은 고등교육기관(대학 및 전문대학) 또는 민간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창업정신,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교육은 초·중등교육기관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Ⅲ. 전문대학의 창업교육 현황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은 ‘창업론’, ‘창업과 경영’, ‘창업실무’ 등과 같이 창업과 관련된 범용적이고 일반적인 교양 선택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창업 전반(창업과정 실무, 사업 아이디어 발굴,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운영 과정, 자금조달 방안, 사업확장 방안, 위기 해결 방안, 조직갈등 치유 방안, 출구전략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얻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대학 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의 2, 3년제 국·공립, 사립 전문대학 140개교에 대해 창업교육 관련 강좌(교양, 전공, 실습) 개설 여부를 파악한 결과, 2011년 기준으로 45개교(32.4%)에서만 창업강좌가 개설되어 있을 정도로 창업교육 자체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창업강좌가 개설된 학교 45개교의 평균 창업강좌 수 역시 4.51개에 불과하였다.

표 6. 전문대학의 창업교육과정 개설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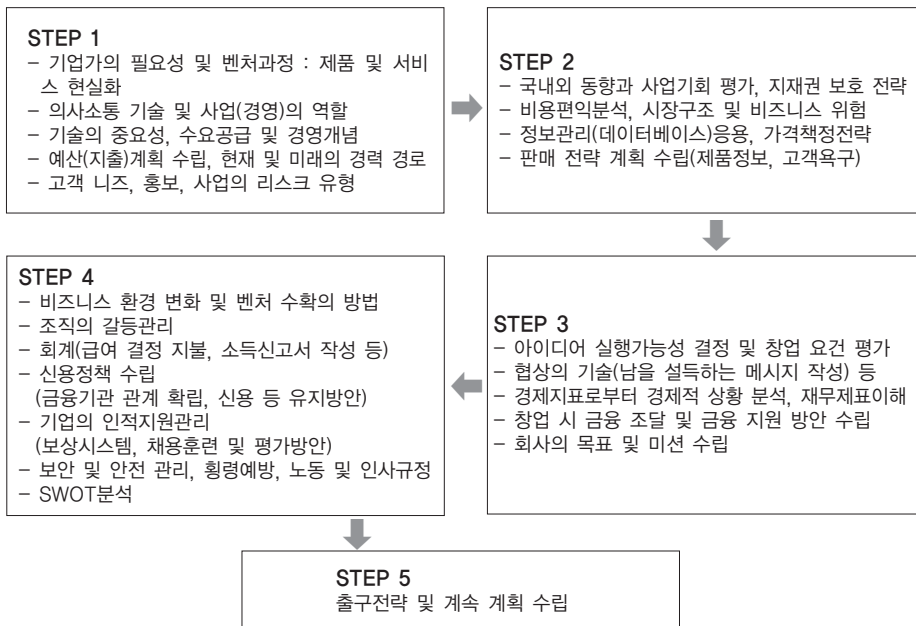
(단위: 개교, %)

	전체	지역별		규모별		
		수도권	비수도권	졸업생 1,000명 미만	졸업생 2,000명 미만	졸업생 2,000명 이상
전체	140	45	95	57	55	27
창업강좌 개설 학교	45 (32.4)	17 (37.8)	28 (29.5)	8 (14.0)	24 (43.6)	13 (48.1)

자료: 대학 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원시자료

반면 외국 사례 중 미국의 CEE(Consortium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sup>1)</sup>의 경우, 2004년~2005년 전국 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가가 하는 일과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다음과 같이 5단계 교육과정에 맞추어 각 단계에 적합한 창업교육 내용을 정의하고 있다.

표 7. CEE 정의에 따른 창업 5단계에 따른 주요 교육내용



창업 전반(창업 과정 실무, 사업 아이디어 발굴, 사업 계획서 작성, 사업 운영 과정, 자금 조달 방안, 사업 확장 방안, 위기 해결 방안, 조직 갈등 치유 방안, 출구 전략 등)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

〈표 7〉의 미국의 단계별 창업교육 과정과 비교할 때, 전문대를 비롯한 국내 대학의 창업교육은 다분히 형식적이며 제한적이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CEE의 단계별 창업교육과정에서 내용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내 전문대학에서의 창업교육과정은 1학기에 ‘창업론’ 3학점, 또 다른 학기에 ‘창업과 경영’ 3학점 등, 그 교과과정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또한 매우 단기적이다. 이에 반해 CEE의 창업교육과정은

1) 미국의 창업교육을 위한 컨소시엄(Consortium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http://www.entre-ed.org> 사이트 참조

5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각 단계내에서도 여러 교과목이 개설되고 더 나아가 경력관리 또는 출구전략까지 함께 고민한다는 측면에서 그 깊이나 실용도가 국내 대학 및 전문대학의 창업교육 과정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주요 부처의 창업정책에 있어서 창업 전반에 걸쳐 필요한 지원을 창업 단계에 맞추어 연결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하였듯이, 창업교육 역시 창업 전반에 걸쳐 필요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킬 수 있도록 과정과 단계의 구분을 나누고 연속성 있는 교육내용으로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 IV. 전문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제고 방안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창업교육은 실제 창업을 위한 체계적인 실무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몇몇 특정 교과를 통한 단발성, 집합적 성격의 교육에 그치고 있음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창업교육은 실제 창업을 위한 체계적인 실무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특정한 몇몇 교과를 통한 단발성, 집합적 성격의 교육에 그치고 있다. 단발성으로 기획된 특정 교과(예컨대, 창업과 경영, 창업실무, 창업론 등)를 통해 창업 전반에 대해 많은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초·중등 교육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창의적 사고력 및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교육마저 대학 및 전문대학의 창업관련 정규 교과목으로 등장하고 있다.


창업이 사회 전반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기관에서는 도전정신 및 인성교육을,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과 전문대학에서는 단계별, 과정별로 체계적인 창업 실무교육을 수행할 필요

창업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서 기능하고 국가 전체가 창조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전반의 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한다. 우선 창업 선택이 사회 전반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기관에서는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한 기업가정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고용주의 덕목 등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전반적인 소양과 지식을 가르치고 인성교육을 실시한 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창업에 대한 실무교육을 단계별, 과정별로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4년제 대학 졸업자와 전문대학 졸업자의 성공창업에 있어서 공통적 요건

은 각기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대학의 일부 졸업자는 전공분야 또는 관심분야의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을 실행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핵심기술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가진 역량(전공 및 관심분야)을 토대로 틈새시장 공략형 창업(반합라면집, PC119, 공동주택 에어컨 유지관리 대행, 배관 등 주택 보수119 등)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두 창업(신기술 창업, 틈새시장 공략형 창업) 모두의 성공 관건은 정확한 시장의 수요예측과 수요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될 것이다. 또한 각각의 창업에서 수성, 확장까지 또는 사업전환 및 출구전략까지 창업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사전에 교육받고 고민하였는가가 창업성공의 전제조건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떠한 형태(기술 중심 창업, 수출지향형 창업, 내수시장형 창업, 틈새시장 공략형 창업, 서비스 중심 창업 등)의 창업에서도 예외가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문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은 창업에 관한 ‘기업의 생성 준비 시점부터 소멸 이후 출구 전략까지’ 필요한 모든 내용에 대한 실무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창업교육을 이수자한 이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우선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층, 특히 전문대 졸업자들의 창업 선택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에 걸쳐 창업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실패 시 재기기회 부여 이외에도 임금근로자로의 복귀 지원 등 활용·가능한 여러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은 창업에 관한 ‘기업의 생성 준비 시점부터 소멸 이후 출구 전략까지’ 필요한 모든 내용에 대한 실무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창업교육을 이수한 이들을 대상으로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07), 제1차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_\_\_\_\_ (2013), 2013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관계부처 합동(2012), 제2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전문)  
교육부(2001), 전문대학 발전방안  
\_\_\_\_\_ (2013), 전문대학 육성방안(시안)  
김주미 외(2013),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한 계열별 창업교육과정 연구, 한국전문대학교육  
협의회  
김철희 · 허영준 · 김세중(2013), 전문대학의 중소기업형 인력양성사업 추진방안 연구, 한  
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김춘진(2010), 전문대학별의 문제점과 대안, 2010 국정감사 자료집  
변정현 · 김선호 · 김은영(2009), 전문대학 직업진로지도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정차근(2013),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 창업교육의 현황과 과제, THE HRD  
REVIEW 16-5, pp. 40-59.  
중소기업중앙회(각년도),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서  
중소기업청(2012), 2012년도 중소기업 연차보고서  
\_\_\_\_\_ (2013), 2013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황성수(2010), 창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with you

행복한 일자리, 역량있는 직업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동행합니다